

한국 방위산업 대표단 일본업체 견학



방문단은 일본의 방산관련 기관과 주요 방산업체의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방산정책과 방산 및 산업제조 분야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일본전기(NEC) 방문시 회사 순이익보다 연구개발 투자비가 더 높다는 사실은 장차 첨단 신무기 개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유사한 단체인 일본 방위장비공업회는 정부 측으로부터 방산에 관련된 위탁 연구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외국에서 구입하는 무기가 거의 없고 자체개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 원가를 전부 보상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이번 방문은 韓·日 양국의 방위산업계가 상호 대화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면 방산업계에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

한국 방산업체대표단의 일본방문이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일본방위간화회 측의 한국방문에 따른 답방의 뜻을 담은 이번 방문은 상호방문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韓·日 양국의 방산업계 우호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교환 방문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鄭秀烈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업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금성정밀, 동부전선에 서비스센터 개설

금성정밀 (대표 손기락)은 동부전선에 방산장비 서비스센터를 개설, 軍 고위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8일 개소식을 가졌다.

'92년 4월 서부전선에 국내 방산업체로는 처음으로 軍을 대상으로 서비스센터를 설치한 금성정밀은 2년만에 동부전선에 제2의 서비스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명실공히 기동성있는 사전서비스(Before Service)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금성정밀은 그동안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전문기사를 고정배치시켜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근접 지원케하여 간헐적인 순회서비스에만 의존하여 방산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제기됐던 기동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또한 서비스센터에서는 고장제품의 수리 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의 정비기술 교육과 운용방법을 사전 교육하는 등 사전서비스 (Before Service)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서비스 폭을 확대하고 주요 고

객인 軍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해 왔다.

금성정밀의 이같은 對軍 서비스는 「軍이 최고의 고객」이라는 의식의 실천과 함께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고객 밀착활동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삼성전자, 육안조준기 개발 성공

- 해외 기술의존 탈피, 자체조달 및 해외수출 기대 -

삼성전자 가 '93년 6월부터 착수한 30mm 자주대공포에 들어가는 육안조준기의 개발에 성공하여 시제품을 완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당초 해외기술도입 생산 예정이었으나 가격상승문제가 발생하여 국방부의 국산화개발 제안 및 개발계획서 승인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개발된 육안조준기는 최신 디지털제어기술 및 광학기술이 적용되어 해외도입품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부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여 가격면에서도 외국제품에 비해 유리해서 국산화 확대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여 軍 전력증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육안조준기는 30mm 자주대공포의 분대장용 잠망경으로 분대장이 포수와는 별도로 주야간 지상 및 대공표적의 탐색, 추적 및 사격용으로 사용된다.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60° 파노라믹 기능을 보유하고, 조준선이 안정화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탐색 및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사격통제장치(FCS)와 연동되어 있어 정확한 조준사격이 가능하며, 야시장비

부착으로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육안조준기는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인 자동추적장비와 결합하면 유사 시스템용 전자광학추적장비(EOTS)의 국내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미국등 몇몇 선진국이 독점 하였던 핵심 광전자 장비인 EOTS에 대한 해외기술의존 탈피 및 자체조달이 가능함을 뜻할 뿐 아니라 독자적인 해외수출도 가능해져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디지털 제어기술로 이동중에도 관측, 조준 및 사격이 가능한 분대장용 육안조준기

